2020 새 설계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달라진 삶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펼치겠다"

백운광장 뉴딜 프로젝트 본격 추진
무상급식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
민·관 협력 복지 공동체 기반 확충

김병래 광주시 남구청장이 최근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새해 구정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올 해는 지역내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지역민들의 삶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병내 광주남구청장은 2일 "삶의 변화를 도모하지 못하는 정책은 빈껍데기 일 뿐이다 "며 "달라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를 비롯해 복지·교육·문화·생활인프라 등 행정 전 분야에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사업을 추진해 풍요로운 삶이 보장받는 남구를 만들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기업 유치·인구 유입에 따른 활기 넘치는 경제도시 ▲도시재생 통한 구도심·신도심간 격차 해소 ▲교육·복지·문화 등 강화 ▲동네마다 생활 인프라 구축 ▲참여·소통 강화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활력 넘치는 경제 도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청장은 "경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아야 하며, 동시에 인구 유입도 필요하다"며 "우리 남구는 이러한 선결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 먼저 대촌동 일원 국가산업단지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이번 달 완료되고, 공공 연구기관 및 기업 입주를 앞에 두고 있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남구는 백운광장 뉴딜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

남구는 백운광장 일원에 청년 특화공간을 조성과 단절된 푸른길 공원을 연결하는 브리지 건설, 로컬푸드 직매장·스마트 주차장·스트리트 푸드존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 옛 보훈병원 일원에 청년복합 플랫폼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 주택 등을 건립할 구상이다.

김 청장은 "올해는 남구청 개청 25년째가 되는 해이자 개청 이래 단일 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79억원이 투입되는 백운광장 뉴딜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해이다"며 "지난해에는 이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였고, 올해부터는 쇠퇴한 백운광장 일원에 청년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구민의 관심이 높은 교육·복지·문화 분야에서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 청장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초·중·고교 41곳에 지원되던 무상 급식을 올해부터는 지역 내 유치원까지 확대해 15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립 어린이집 6곳을 추가 확충한다. 스마트도서관 2호점, 청소년 창의진로 체험 공간 조성, 평생학습 공동체 지원 등의 사업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저소득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매달 학습지·건강음료 지원, 농촌마을 거주민들의 에너지 격차 해소를 위한 태양열 보급 등 취약계층 복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는 치매안심센터 개소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자활근로자 자립 향상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민·관협력으로 복지 공동체 기반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소통과 참여 확대 차원에서 아카데미를 비롯해 구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포인트제를 활성화한다. 22만 구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을 총회와 모바일 투표 도입하고 마을분쟁 해결센터 지역 소통방을 확대 운영해 따뜻한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등도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구정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올 한해 혁신과 소통, 협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으로 밝은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31일 시청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구호급식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박흥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에게 차량을 전달한 뒤 적십자사 직원 및 봉사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적십자사에 구호급식차량 기증

광주시는 지난 31일 시청사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구호급식차량을 전달했다. 구호급식차량은 광주시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 5t 차량을 개조한 것이다. 1회에 600인분의 취사가 가능하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기존 차량이 노후화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마련된 구호급식차량은 최신식 취사설비와 자체 발전기를 갖추고 있다. 전기 공급이 어려운 재난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이 구호급식차량을 재난지역 구호 현장과 각종 봉사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보고 싶은 책, 서점에서 편리하게 빌려 보세요"

시립도서관 희망도서 대출 서비스

광주 시립도서관 회원증을 가진 시민들은 읽고 싶은 책을 광주 7개 서점에서 빌려 보고 반납할 수 있게 된다.

시립도서관은 이용자가 서점을 방문하거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리브로피아'에서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시립도서관 승인을 거쳐 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3일 부터 제공한다.

대출 가능 서점은 ▲동구 광우서적 ▲서구 새날서점, 이호서점, 한림서적 ▲남구 글방문고 ▲북구 열린문고 ▲광산구 숨이다. 시립도서관 회원증을 가진 정회원이면 누구나 1회 3권, 한 달에 6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출간된 지 5년이 지난 도서, 정가 5만원이 넘는 도서, 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에서 총 10권 이상 소장 중인 도서, 자료내용 및 형태가 도서관 소장도서로 부적합한 도서(수험서, 스티커북 등)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도서는 도서 대출 안내문자를 받은 후 바로 빌려볼 수 있다. 도서관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7일 이내 지정한 서점을 방문하면 된다. 대출 도서는 14일간 이용하고, 1회 대출 연장을 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영광·제주서 올 첫 발생
어패류 익혀먹기 등 수칙 준수

광주시가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13일 영광군과 제주시 산지천 바닷물에서 올해 첫 번째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예년보다 3~4개월 빨리 신고됐고, 해수에서도 비브리오패혈균이 검출되고 있어 해수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한다.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먹는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은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 등이다.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리면 급작스런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동반한다. 하지에서 발진, 부종, 수포, 궤양 등 피부병변의 증상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내달부터 수어통역서비스

TF팀 회의 운영방안 등 합의

광주시 수어통역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9일 시청에서 시의회, 농아인협회장, 농아인지부대표, 수어통역사 대표(노조, 비노조), 장애인복지관협회장, 장애인종합지원센터장 각 1인으로 구성된 TF팀 2차 회의에서 수어통역서비스 운영방안, 수어통역사 공개채용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냈다.

수어통역서비스 운영 기관은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며 각 지역 장애인복지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효율적인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어통역사 채용은 시립장애인복지관 인력채용 기준에 따라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수어통역센터 폐쇄 등 행정절차는 수어통역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규정, 채용 등) 구축 후 진행하도록 했다.

농아인협회에서 수년간 요구해온 농아인 쉼터는 내년도 예산에 시와 시의회가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시립장애인복지관은 수어통역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운영규정과 수어통역사 공개채용에 따른 제반 행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해 3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어통역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갈등은 지난 2014년 7월 수어통역센터를 1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북구,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 마련 '총력'

광주시 북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도시 기반 마련에 나선다.

북구는 "광주시의 인공지능 중심도시 전략에 발맞춰 이달부터 '인공지능을 가장 잘 아는 도시, 광주 북구'를 만들어가고자 '2020년 인공지능 도시 기반 구축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북구 첨단3지구에 조성될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내·외부 사업 및 정책을 발굴해 인공지능 중심도시에 대한 가치와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인공지능 가치·분위기 확산 ▲인공지능 인재 양성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등 4대 목표와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3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공지능 대학원장인 김종원 교수를 초청해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공직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특강을 개최하면서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